



최고 품질 갖춘 포장재로 아름다운 세상 창조 목표

사원복지 향상, 가족같은 노사관계 정립 주력



▶ 세미산업(주) 고영희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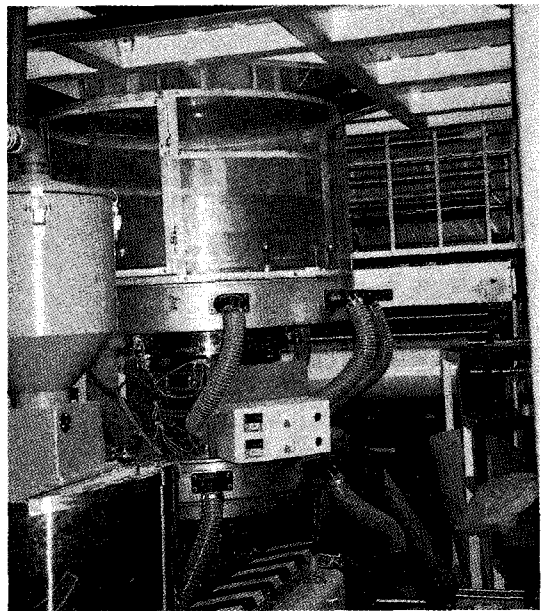
1973년 농업용 필름과 사출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을 모체로 81년 연포장 사업을 더 하고, 95년 이후부터는 연포장에만 주력해 온 세미산업(주)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4년여만에 연포장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농업용 필름이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세미산업(주)의 고영희 사장은 81년, 사회경제의 구조가 달라질수록 식품을 비롯해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포장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포장 사업을 더하게 되었고 95년 연포장에 주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회사명도 세미산업(주)이라고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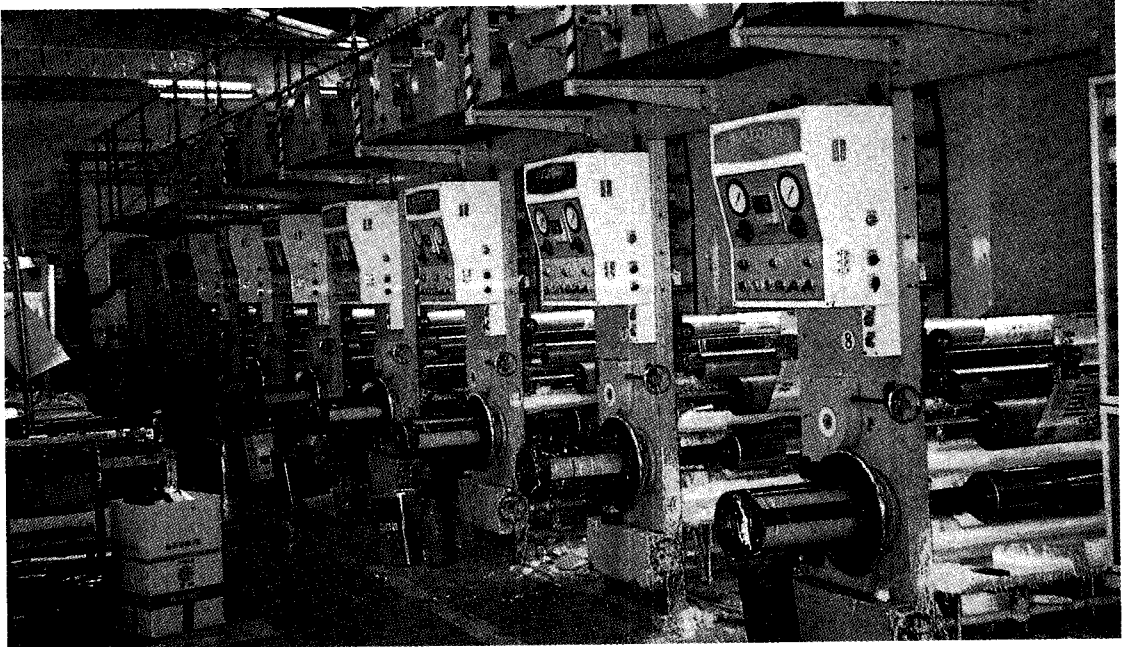
회사명에서부터 '포장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세미산업(주)은 현재 단순·종합조미료 포장지, 농협제조김치 포장지, 커피류와 냉동식품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93년 TWO LAYER 기계를 설치해 LLDPE 라미네이션 필름을 생산해 자체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외판도 겸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복한 삶은 깨끗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세미산업(주)은 환경보호를 위해 PE백의 환경친화적인 소재



▲ 세미산업(주)은 LLDPE필름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 세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8도인쇄기

를 적극 활용해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양평동에 위치한 세미산업(주)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밝은 작업환경이다.

공장 내부가 말끔하고,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환풍시설과 조명을 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작업장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해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한 사원의 복지향상과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 고객만족의 우수한 제품 생산, 임직원의 이윤 배분, 그리고 건실한 기업을 건설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저축을 위해 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고영희 사장은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을 맡고 있는 직원들까지 평균 7년 6개월의 근속기간

을 보유하고 있음을 듅직하게 생각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와 그들의 요구를 받아안을 줄 아는 세미산업(주)의 힘이라 하겠다.

최근 기술의 수준은 평준화되고 소비자들의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제품보다는 포장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포장산업의 위상제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품질의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 세미산업(주)은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화업체에서 연 1 내지 2회 정도 개최하는 기술대학에 각 분야별로 관련 팀들을 파견해 신기



술과 정보를 습득하게끔 하고, 이를 생산현장으로 직접 연결해 앞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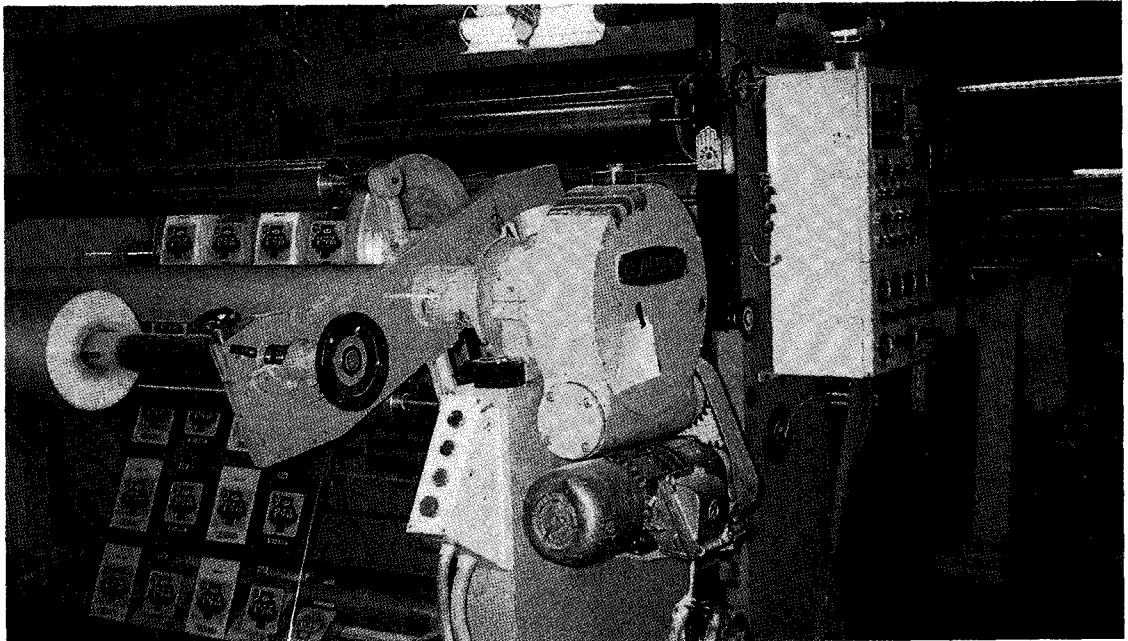
이 외에도 포장과 관련된 교육에는 반드시 참가해 최신 정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세미산업(주)은 최근 IMF라는 크고 험한 파도를 넘으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무난히 넘겨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할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급여삭감 등의 손에 잡히는 빠른 방법을 통해 기업살리기에 안간힘을 쓸 때 세미산업(주)은 인성이라는 강한 선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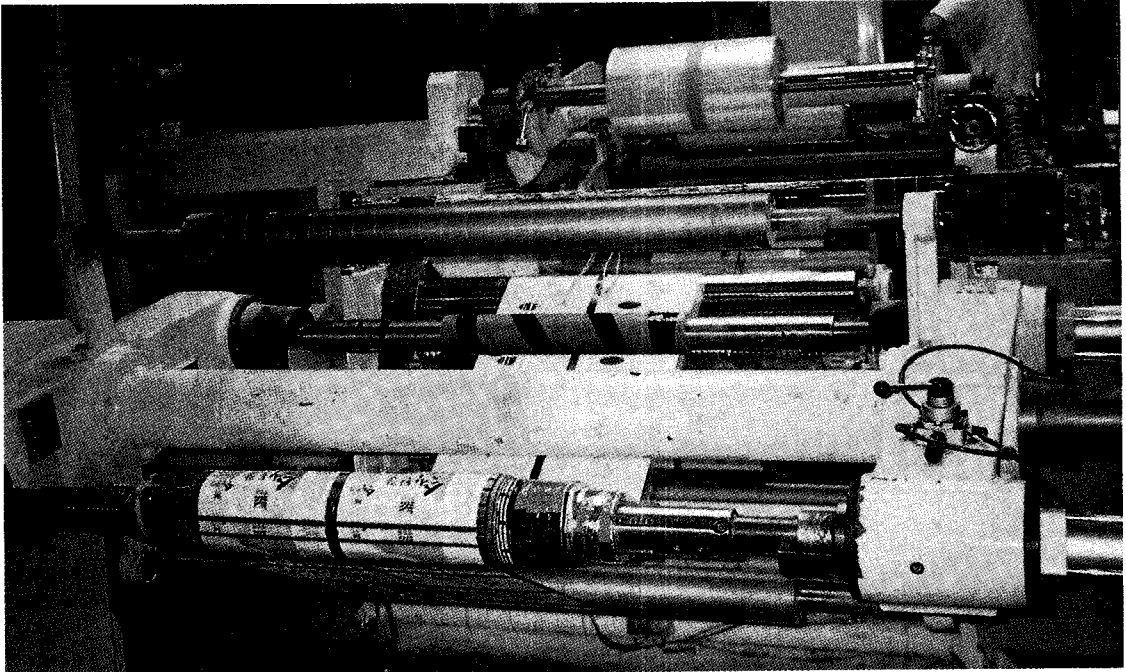
“어렵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사 창립에서부터 시작해 쉽지않은 고비가 있을

때에도 어느 한 사람, 힘에 겨워 하는 제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가 어렵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의 세미를 있게 한 그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강한 주장을 펴는 고사장은 구조조정 대신 노사간의 협력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고, 그간 다져놓은 탄탄한 영업망을 풀가동해 지난 해의 어려움을 넘어서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처럼 세미산업(주)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세미산업(주)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임원들간의 의사소통 통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모습은 세미산업(주)이 가진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 세미산업(주)의 라미네이팅기



▲ 세미산업(주)의 슬리터기

이러한 노사간의 노력의 한마음으로 세미산업(주)이 지난 해의 여러 고비를 넘겨 정상가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고 사장은 그 노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올해는 적은 액수나마 임금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 사장의 경영방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연포장업체의 경우 제품의 준비시간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비해 롯데가 너무 적다는 특징과 함께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자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경영주들이 원가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나 한사람 정도는 팬

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 가격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작은 이기심이 연포장업체 전체를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고 사장은 경영자서부터 원가개념을 철저히 인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므로써 연포장업체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격 받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는 덧붙임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건실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거듭해 포장업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마음껏 근무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겠다는 세미산업(주)의 당찬 희망에 포장업체의 밝은 앞날을 견지해 본다. ☐

윤지은 기자